

11월 0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1월 0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랠리 재개 앞두고 곳곳에 암초	뉴욕 증시가 일단락된 랠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음. 이번주(2~6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고용보고서, 제조업지수, 자동차판매 등의 재료가 대기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려움. 뉴욕 증시는 지난달 8개월만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11월 증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주 재료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음.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11월 FOMC 결과에 따라서는 증시에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 10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사라진 일자리와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ISM 제조업지수와 서비스업지수, 공장주문 등은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드러내줄 예정임. 이밖에도 3분기 어닝시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포드, 시스코시스템스, 타임워너 등이 이번주에 실적을 내놓음.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월간 판매량도 발표됨. 아울러 정책 측면에서는 11월말 종료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美 CIT, 파산보호 신청..사상 5번째 규모 파산	미국 중소기업 전문 대출 금융사 CIT그룹이 1일 오후(현지시간)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음. 101년 역사의 CIT그룹은 71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의 20위권 은행이어서 미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임. CIT의 파산보호 신청은 리먼 브러더스 홀딩스, 워싱턴 뮤추얼, 월드컴,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규모면에서 미국 역사상 5번째임. 지난해 말 재무부로부터 23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도 CIT의 자금난은 계속돼 왔었음.
FOMC 경기판단 수정 여부 주목	11월 FOMC에서는 연방기금금리가 현행 제로(0~0.25%)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경기에 대한 판단은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앞서 지난 9월 FOMC 성명문에서는 "경제 활동은 극심한 하강에 이후 회복됐다(picked up)"면서 "금융시장의 상황은 더욱 개선됐고, 주택 부문의 활동도 증가했다"고 판단. 당시 연준은 경기후퇴 진입 이후 처음으로 `회복`이란 단어를 사용. 그러나 기준금리를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exceptionally low levels) 장기간(extended period)` 유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음. 이 표현은 지난해 12월 이후 일곱 번 동안 바뀌지 않았음. 다만 지난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3.50%를 기록,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준 만큼 이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소비 부진 우려에 77달러로 급락	국제 유가가 30일(현지시간) 거래에서 배럴당 77달러대로 급락했음. 미국의 소비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영향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87달러(3.6%) 하락한 77달러에 마감했음. 미국의 9월 개인소비는 5개월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0월 로이터/미시간대의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대비 하락했음. 이로 인해 상품시장에서는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유 선물 매도세가 이어졌음.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점도 유가에 하락 부담을 가중시켰음. 한편 유가는 이달 들어 달러 약세의 지속과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음.
금융당국 "저축은행 자산확대 우려" 경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무리한 자산확대 경쟁에 우려를 표명. 건전성과 새로운 수익사업을 고려치 않은 자산확대는 향후 저축은행의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임. 양성용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는 지난 달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최근 자산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저축은행이 많이 등장했으나 건전성과 새로운 수익 사업이 동반됐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자산확대는 오히려 저축은행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고 밝혔음. 실제 2008년 회계기준 결과, 부산과 한국계열 저축은행의 자산이 최초로 8조원을 넘어서는 등 자산순위 상위 7개 (부산·한국·솔로몬·현대스위스·토마토·제일·HK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37조원에 이르고 있음. 양 부원장보는 "자산이 급증한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집중한 경향이 강했다"며 "PF대출로 업계 전체가 건전성 위기를 겪은 만큼 무분별한 자산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음.
‘수입, 위기 회복’ 올해 첫 300억불 돌파(종합)	수입이 금융위기 여파를 벗어났음.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수입이 300억달러대에 진입. 소비재 수입도 올해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음. 수출은 지난 9월에 비해 다소 주춤했지만,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 특히 중국에 이어 아세안 등 신흥개도국의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였음.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3% 감소한 302억3000만달러를 기록. 특히 자동차·의류 등 소비재 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40%에 달하던 원자재 감소율은 10월에 -19.1%로 크게 둔화. 겨울을 대비해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도입물량이 증가했기 때문. 반도체장비(31.4%), 자동차부품(11%), 선박부품(10%)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본재도 -13.5%를 기록해 감소세 둔화가 지속. 강명수 지경부 수출입과장은 "수입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 확대→수출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강한 시그널"이라고 말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